

광화문광장 심정지환자 발생대비 자동심장충격기(AED) 보관함 설치

새로 개장하는 광화문광장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, 집회시위 참가자 등 급성 심정지환자 발생시 골든타임(4분)내 응급처치를 위해 시민광장(남측), 역사광장(북측) 등 광화문광장 2~3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(AED) 보관함을 설치하고, 광장안내도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 설치 위치 표기

□ 제안배경

- 서울시는 오는 8월 6일 광화문 광장 개장식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“세종 문화회관을 활용해 미디어파사드 쇼 등을 준비하고 있다” 고 밝혔으며, 또한 오는 15일에는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광복절 행사도 개최할 예정
- 광화문광장은 총 4만300㎡로 기존 면적인 1만8840㎡의 두 배 이상이며, 소나무, 느릅나무, 느티나무, 산벚나무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무를 심어 ‘테마가 있는 숲’도 조성,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원리를 담은 ‘한글 분수’가 조성되고, 이순신 장군 동상 주변에는 명량대첩을 기념하는 ‘명량 분수’도 설치

※ 8월 6일 개장할 광화문광장 조감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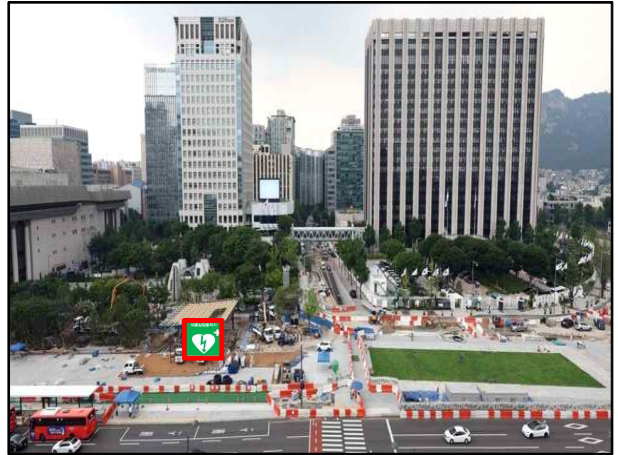
- 심정지 환자에게 응급처치 시 골드타임인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동시 사용하여야 하는데, 교통체증이나 도로점거한 시위대에 의해 119구급대의 진입이 어려워 지연 도착으로 환자들에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많아 대책마련 필요

※ 광화문광장을 개장하면, 많은 시민들과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고 주말에는 집회시위도 많이 개최할 것으로 예상

□ 개선방안

- 서울시에서는 새로 개장한 광화문광장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 등 급성 심정지환자 발생대비하여 ‘광화문광장 내 자동심장충격기(AED) 보관함 설치’ 필요 (광장개장 후 AED 설치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)
- 광화문광장 내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을 시민광장(남측), 역사광장(북측) 등 2~3개소에 설치하고, 광장안내도에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표기

▶ 광화문광장 내 자동심장충격기(AED) 보관함 설치 위치 가안



※ AED보관함을 세종문화회관 외부 등 햇빛과 강우를 차단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도난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

-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자동심장충격기(AED)를 사용해 응급처치하면 생존율은 44%까지 향상되어, 광화문광장 내 설치한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 외부에 시민들이 평상시 스마트폰(모바일)으로 심폐소생술(CPR)·자동심장충격기 국민행동요령을 동영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‘심폐소생술·자동심장충격기 동영상교육 QR코드’ 부착

□ 기대효과

- 광화문광장 내 자동심장충격기(AED) 보관함 설치로, 광장을 이용하는 내외국인 관광객, 집회시위 참가자 등 급성 심정지환자 발생시 24시간 AED 사용이 가능하여 골든타임(4분)내 신속한 응급처치로 심정지환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 시민안전 확보 가능
- 평상시 시민들이 광화문광장 내 설치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 외부 QR코드 활용 심폐소생술·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응급처치 교육 열람으로 응급처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어, AED 사용과 일반인 심폐소생술 실시율 증가로 급성 심정지환자 생존율 향상에 기여